

# “글로벌30, 지역발전 위해 필요”

### 전북대 양오봉 총장, 국토부 고위공무원 대상 특강 대학의 우수 한옥 인프라·교육 시스템 등 소개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의지 표명... 협력 당부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지난달 31일 전북대에 따르면 국내 최고 한옥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고창캠퍼스가 국토부와 국토교통부 인제개발원의 고위직 공무원 정책과정(한옥) 교육을 유치해 매년 진행하면서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창에 머물면서 각종 이론교육 특강과 한옥실습 및 체험, 전북 일원의 한옥 답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부 공무원 교육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국토교통부 인제개발원이 개설한 100여개

과정 중 가장 인기가 높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양 총장은 전국적으로 한옥의 매카로 손꼽히고 있는 전북대 한옥 인프라와 교육과정의 우수성 등을 설명한 후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중앙 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양 총장은 “전북대는 한옥정문을 비롯해 국제컨벤션센터, 방학전문대학원, 대학의 랜드마크인 한옥광장인 건지광장과 문화루, 대학 내 카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한옥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교육에선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한옥학과를 국내 처음 개설 운영하고 있고, 매년 국·내외에서 한옥 전시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노력으로 알제리아 및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고창에서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리핀 베트남 미국 등에 한옥을 수출했고 현재 10여개 국가에 20여개 한옥 수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북대가 K-HOUSE와 K-CULTURE를 해외에 보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글

로컬대학30 사업을 목표로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우리대학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친환경주거가 나아가야 할 길은?

### 전북대, 오늘 LH전북지사서 포럼 개최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학과장 장미선)는 1일 LH 전북지사 소통 공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과 도시 차원의 친환경주거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교류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기후변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친환경주거와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주거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북대 장미선 교수의 사회로 안국찬 전북대 대외·취임부총장과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 윤우준 LH 전북지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박시현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주거에 대해, 최정만(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기술’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특히, 불에 타지 않는 목재 등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가능성 건축자재 개발에 있어 국내 최고 석학인 전북대학교 박희준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목재에 가치를 더한다. 탄소중립과 기능성 건축자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한편,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학생들이 지역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간적 해법을 모색한 주거공간 우수 설계작품을 3일까지 LH 전북지사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다.

장미선 학과장은 “신학연이 공동으로 친환경주거의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했다”면서 “주거환경학과 학생들이 북돋는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도 만나볼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교육행정직 전임공무원 공개 모집

### 6~8급 대상... 7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행정직 6~8급 전임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지역은 6급은 현 직급 경력 6년 이내, 7급은 현 직급 경력 7년 이내인 사람이며, 8급은 응시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일까지 자기소개서, 주요업무실적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K-이슈포털을 통해 도교육청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면접 평가는 10일 치러지며, 해당 직급별 필요한 역량과 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공문제와, 자기소개서 및 주요업무실적 등을 활용한 개별 질문으로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논리성 △응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이다.

한편 최종 전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1월 1일자에 맞춰 인사발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독서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독서교육 방향 모색

### 도교육청,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원탁토론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독서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원탁토론회는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운영학교

및 관심 교원 170여 명이 참여했다.

먼저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담당 장학사가 전북교육청의 독서인문 교육 정책 방향 및 추진현황을 설명한 후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 현장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형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책 읽기와 관련해 겪는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책 읽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독서교육 방향

을 모색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서기 문예재단감사장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양서를 읽으며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원탁토론회는 학교의 책 읽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배양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교대, 재난대응

### 안전한국훈련 실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지난 30~31일 양일간 대학본부 및 한글테마공원, 과학교육실습실 등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첫째 날은 지진·화재 대응 토론 훈련과 재난대비태세 자체 점검 회의 및 실습실 화재 예방 시 대 초교육을 진행하고, 이어 둘째 날은 비상소집 훈련, 재난 안전 교육 및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박병준 총장은 “재난은 발생 초기 대응에 따라 그 피해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난대응 능력은 재난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반복된 훈련을 통해 발휘되는 만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지진 발생 시 상행렬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도내 중학생들, 美 항공우주국 글로벌 캠프 참여

### 도교육청, 1~12일 해외 연수

도내 중학생들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 간다.

지난달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해외연수 일환으로 운영되는 ‘NASA 글로벌 캠프’에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오는 12일까지 미국에서 진행된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문제 상황 대처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팀별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1~4일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미국 명문대학교 과학 탐구 활동, NASA Goddard Space Center 특강 문화 체험, 박물관 탐방 등을 통해 이공계 진로선택 및 설계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어 5일부터는 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해 있는 공업도시 현츠빌에서 NASA Space Center 캠프에 참여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해외연수 일환으로 운영되는 NASA 글로벌 캠프에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전 교육 현장.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로켓과 추진력의 원리, 우주여행사 시뮬레이션, 우주복 체험, 우주선 발사 준비 단계의 이해, 중력·화성 무중력 체험, 미션 트레이닝 및 팀 미션 체험, 로켓 모형 만들기 등 미래의 우주탐험을 위한 융

합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 과학기술을 경험함으로써 세계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글로벌대학30 적극 지원 방산분야 인재양성 협력

### 전북대, 방위산업진흥회와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31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최병로)와 협약을 맺고 글로벌대학30 사업을 방위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섰다. 현재 전북대는 방위산업융합전공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하는 방위산업 전문기관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 진흥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전북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참여해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학생 취업 등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원사 기업체에 학생 인턴십과 취업 등을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해 유망한 방위산업 분야로 전북대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 진흥정책의 첨단 신기술과 신소재 개발 연구 등을 공동 수행하고, 방위산업 기업체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공유도 이뤄질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최고의 방위산업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전북대가 공급하



전북대학교는 지난 31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위산업 분야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 기업 맞춤형 인재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전북대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로 상근부회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산업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나서는 전북대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위산업 분야의 R&D 및 산학협력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평생학습 협력·문화 교류 확대

### 전주대, 함양군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31일 함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진배 총장과 이상행 학생취업처장, 진병영 함양군수와 김성진 행정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 △학생 대상 지역의 문화·역사 교류 상호 협력, △대학 평생학습 차원의 관·학 협력 확대 △군민 대상의 대학 특성화 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 지원 등이 있다.

박진배 총장은 협약식에서 “우리 대학은 함양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함양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과 진병영 함양군수(사진 오른쪽)이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주대학교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병영 함양군수는 “전주대의 인재들과 함양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접목해 앞으로 지역사회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하며 우리 군에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